

교황 레오 14세의 회 칙 “당신을 사랑했나 이다 (Dilexit Te)”을 요약하는 15개의 핵 심 구절.

교황께서는 가장 도움이 필요
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가톨릭 신앙의 본질임을 상기
시켜 주십니다.

2025-11-13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15DilexitTe

1. 작은 행위들. "사랑의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통과 외로움과 궁핍 속에 사는 이들을 향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4항)

2. 하느님의 마음.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필요에,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8항)

3. 다양한 가난의 형태. "가난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 생계 수단이 없는 이들의 가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자신의 존엄과 능력을 드러낼 수단이 없는 이들의 가난, 도덕적·영적 가난, 문화적 가난, 개인적·사회적으로 나약하거나 연약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가난, 권리도 공간도 자유

도 없는 이들의 가난이 있습니다." (9항)

4. 문화의 변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안락한 삶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라는 환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의 축적과 사회적 성공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갖게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불의한 사회 이상과 정치·경제 체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려는 것입니다." (11항)

5.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근본적 선택.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난과 연약함 앞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행동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정의와 형제애와 연대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느

님께서는,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특별히 돌보시며, 당신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확고하고 근본적인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16항)

6. 하느님 사랑의 반영. "하느님과의 관계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랑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 사랑의 반영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26항)

7. 너그러움은 실천하는 이에게 선익.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베푸는 행위를 꺼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너그러움이 실천하는 이에게 진정한 선익임을 알려 줍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우

리는 하느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33항)

8. 하느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길. "초 세기부터 교부들은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길을, 하느님을 만나는 독특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강생하신 말씀을 향한 믿음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39항)

9. 인간 노동.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인간 노동은 모든 사회 문제의 열쇠이며, 아마도 가장 본질적인 열쇠'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87항)

10. 사랑의 힘. "사랑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참된 역사적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참조해야 할 원천이며, 이를 시급히 실행해야 합니다." (91항)

11.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복음화하기를 허락합시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이들에 의해 복음화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신비로운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극심한 불안정 속에서 자라나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아무도 자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 돋는 가난한 이들은 그들 마음의 신비 속에 간직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체험이라는 지혜의 샘에서 받을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102항)

12. 교회 쇄신의 길. "모든 교회 쇄신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동기와 방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과도 구별됩니다." (103항)

13. 연대하는 마음. "교회의 마음은 그 본성상 가난하고 배척당하고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지는 이들과 연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시고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온전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요청이 있으며, 이는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해방 사업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소수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111항)

14. 영적 돌봄의 부족. "우리는 단지 원조와 정의를 위한 필수적 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일관성 결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이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돌봄의 부족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우선적이고 특별한 영적 관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14항)

15. 만남으로서의 기부금. "한편으로, 가난한 이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은 그가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존엄에 걸맞은 삶을 꾸릴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개인적 노력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부족은 생계를 위한 수입원의 부족 이상입니다. 일은 그것도 맞지만,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꽂피고, 젊은 이들은 오직 일을 통해서만 어른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체적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선은 다른 이들의 처지와 접촉하고 만나며 동일시하는 데 필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15항)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gyohwang-reo-14seyi-hoecig-dangsineul-saranghaessnaida-dilexit-te-eul-yoyaghaneun-15gaeyi-haegsim-gujeol/>
(2026-1-16)